

광주 U대회 준비 상황

경기장 신축 착수... 남북단일팀 논의 활발

대회 3년 앞... 본격 대회준비 시동

인프라 구축 위한 국비 지원 관건



2015년 광주유니버시아드가 3년 앞으로 다가왔다. 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한 인프라 구축이 차분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부터는 경기장 신축 등 본격적인 대회 준비에 들어간다.

특히 광주시와 UN 남북단일팀 구성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성사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하지만, 대회 이전까지 대회시설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국비 지원 등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았다. 또한,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전 시민이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는 시민 의식 향상 프로그램 개발도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 경기장 신설·보수

올 하반기부터 경기장 신축과 기존 경기장의 개·보수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21개 종목을 치르기 위해서는 총 73개의 경기장(경기장 38곳·훈련장 35곳)이 필요하다. 광주시와 조직위는 경기장 건설에 과도한 예산을 투

입하지 않고 최소한의 시설만을 건설해 도심 재생효과까지 노린다는 전략을 세워놓고 있다.

73개 경기장 중 새로 신설될 경기장은 수영장과 다목적 체육관, 테니스

장, 양궁장, 염주 육상훈련장 등 5곳이다. 시는 총 사업비 4683억원을 투입, 수영장과 다목적 체육관, 양궁장 등 5개 시설에 대해 올 하반기 공사를 발주해 2014년 준공할 계획이다.

신설되는 경기장은 최첨단 기능과 뛰어난 조형미를 갖춘 지능형·친환경 녹색 경기장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또한, 기존 경기장 33곳(광주 14·전남 19)과 훈련시설 35곳(광주 22·

전남 13)에 대해서는 올 연말 종목별 경기장이 최종 확정되는 대로 국제 규격에 적합하도록 내년 상반기 실시 설계 용역을 거쳐 개·보수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주경기장인 월드컵경기장과 선수촌 간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주경기장 주변 4.4km 구간 도로도 개설된다.

수영장 등 5개 신축... 68개는 개·보수

한반도 평화 위해 유엔에서 중재 나서

화사무국(UNOSDP)은 지난달 10일 '광주U대회 공동 프로젝트 협약식'을 갖고 U대회 남북단일팀 구성에 위한 스포츠 교류 활동을 강화하기로 합의

했다. 이는 유엔과 아시아 대륙 국제 스포츠대회 조직위원회 간의 첫 번째 협약으로, 한반도 평화와 남북교류 증진을 위해 유엔이 공식 창구 역할을

맡기로 약속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또한, 남북단일팀 구성에 강한 의지가 있는 강운태 시장은 지난 12일 폐막한 여수세계박람회에서 반기문

UN사무총장을 직접 만나 하계 U대회에 남북단일팀 구성 지원을 요청했고, 반 총장은 UN 차원에서 이를 적극 돋쳤다고 답했다. 스포츠대회에서 남북 단일팀 구성은 지난 1991년 일본 지바 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 이어 지난해 '피스 앤드 스포츠 컵'에 타구 종목의 남북 단일팀이 구성됐었다.

단계의 언어교육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셈이다.

통역봉사단도 만번의 준비를 하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해 U대회에서 활동할 통역 자원봉사단 발대식을 했다. 2010년부터 광주시가 주최하는 전국 청소년 영어토론회와 주니어 통역사 선발대회에서 수상한 전국 초·중·고등학교 학생 50여명으로 구성됐다.

전국 대학생 서포터즈 15만 여명 모집

대회 성공 개최를 좌우할 자원봉사자 인력 양성 인프라가 구축되고 있다. 특히 전 세계 대학생의 축제인 만큼 대학생 자원봉사자의 역할이 클 것으로 기대되면서 광주시와 조직위는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 자원봉사자 육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대학생 홍보대사(1기~3기) 180명이

활동중이다. 또한, 올해 처음 대학생 서포터즈가 발족됐다.

광주·전남지역 14개 대학 소속 대학생 1500명이 서포터즈로 활동하고 있다. 조직위는 향후 대학생 서포터즈를 전국으로 확대해 대회 전까지

15만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밖에 각 대학교의 학보사 기자들을 중심으로 한 대학생 기자단이 광주 U대회를 홍보하고 있다. 3개 대학생 조직은 앞으로 국내 및 전 세계 대학생들과 적극적인 네트워킹을 진행하며 광주 U

대회를 성공적인 대회로 이끌어 간다는 계획이다.

시민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유니버시아드 외국어 스쿨'을 통해 지난 한 해 동안 3만5000명의 교육생이 배출됐다. 자원봉사 육성 및 모집 전

따라서 광주시와 조직위도 자원봉사 인력 양성에 심혈을 기울이며, 자발적 시민 참여를 유도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다. 강운태 광주시장도 지난 13일 간부회의를 통해 "런던 올림픽에 가보니 겨리마다 경기장마다 자원봉사자 천국이었다"고 칭찬한 뒤 "크게 본받아야 할 점"이라며 자원봉사 육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최윤기 ckj@kwangju.co.kr

시민들 적극적 참여가 성공개최 열쇠

역 원을 확보해 경기장 시설 설계 및 IT시스템 구축 등 대회 주요 기반시설을 구축하게 됐다. 하지만, 국비 보조율이 낮아 자방비 부담이 커 시 재정 부담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현재 30%인 국비보조율을

50%로 높이기 위해 노력중이다. 또한, 지역 국회의원과 조직위 등과 연계해 정부의 특별교부세 확보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광주시는 특히 대회 마케팅과 흥행전략 개발을 통해 스폰서 수입 등 자체 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다.

대회 성공 개최를 위해서는 자발적 시민참여와 다양한 문화행사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13일 폐막한 런던올림픽은 성공한 자원봉사로 평가받고 있다.



행가래 한번 받아볼까?



세기보청기

세기의 무대는 세계입니다!

탁월하지 않으면 세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세기보청기는 누구도 따라 올 수 없는 완벽한 기술력을 모두 갖추었습니다.

이제 세기보청기가 여러분을 행복 속으로 모시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표보청기-

(segistar.co.kr)

www.segistar.co.kr

전국
점령

서울 신이로점(한국공유 상임) 월가: 02)279-0657~0 강남점(강남그린티너 월: 02)277-0220 송파점(송파역 2번 출구: 02)41-2208 경기: 031)27-2289 부평점(부평역): 032)57-5110 수원점(수원 월: 031)246-8655 안양점(백산로 2001 이룸넷 월: 031)49-0101~0105 평촌점(평촌역 월: 031)659-5110 오산점(오산시 105): 032)39-4040 남양주점(한국 호텔역 월: 070)882-6603 원주 서원점(서원터미널): 031)36-1006 남포점(남포동): 032)28-7200 울산점(울산터미널): 052)28-2283 경남 밀양점(밀양터미널): 051)42-0440 삼목점(삼목터미널): 053)42-1510 남성점(남성터미널): 050)42-0755 경북 청도점(청도터미널): 053)25-0867 대구 경포점(경포터미널): 051)46-4440 청주점(청주터미널): 053)38-6600 남원점(남원터미널): 063)63-2026 대전 청진점(청진터미널): 042)25-5110 대전 청천점(청천터미널): 042)22-3388 대전점(대전 월: 042)25-4900 충북 청주점(청주터미널): 041)53-5110 충북 청주점(청주터미널): 041)53-2888 광주점(광주터미널): 033)67-0568 충청점(충청터미널): 033)25-5110 제주 제주점(제주터미널): 064)753-4358

세계적 권위의 인증! FDA허가!



상담전화

1588-8499/080-222-0100

세기보청기 대리점 사업본부 문의전화 02)538-9388

